

2023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④	2	②	3	②	4	③	5	②
6	⑤	7	①	8	⑤	9	②	10	⑤
11	⑤	12	④	13	③	14	①	15	③
16	②	17	②	18	⑤	19	②	20	③
21	④	22	③	23	④	24	④	25	①
26	④	27	④	28	①	29	①	30	⑤
31	①	32	③	33	③	34	⑤		

해설

[1~3] (독서 이론) 이성영, 「주제 통합적 독서」

이 글은 주제 통합적 독서의 개념과 절차, 효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주제 통합적 독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화제와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나 형식을 지닌 글을 통합적으로 읽고 재구성하는 독서이다. 이 독서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독서 목적에 따라 선정한 글의 내용을 통합하여 주제에 대한 독자 자신의 관점을 구성하는 데 있다. 주제 통합적 독서의 일반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독자는 독서 목적에 따라 탐구 주제를 정한다. 그리고 주제와 관련 있는 책들을 찾아 읽기 목록을 만든다. 그다음에는 수집한 책을 빠르게 훑어보며 어느 부분을 읽을지 파악한다. 선별한 글을 꼼꼼히 읽은 후에는 글의 내용과 형식, 글쓴이의 관점을 비교하여 탐구 주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구성한다. 자신의 관점을 구성할 때에는 이미 읽은 글에 나오는 특정 관점을 비판하거나 지지하며 구성할 수도 있고, 아예 새로운 관점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 주제 통합적 독서를 하면 비판력과 추론력을 기를 수 있고, 주제를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생성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생활 환경이 다양해짐에 따라 복잡한 성격의 사회 문제가 증가했는데, 이러한 문제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해야 그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 주제 통합적 독서는 이런 해결책을 생성할 수 있는 독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1.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2문단에서 읽은 글에 나오는 특정 관점을 비판하거나 지지하여 자신의 관점을 구성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처럼 탐구 주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구성할 때는 다른 관점의 글도 활용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서 독자는 독서 목적에 따라 탐구할 주제를 정하고, 수집한 책을 빠르게 훑어보며 어느 부분을 꼼꼼히 읽을지 파악하는 활동을 하며 탐구 주제를 구체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독서 목적을 정한 후에야 탐구 주제를 구체화할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여러 글을 편견 없이 읽어야 하므로 주제를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주제 통합적 독서를 하는 독자는 글들을 읽을 때 누구의 관점으로 읽을지 미리 정해서는 안 된다. ③ 1문단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화제와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형식을 보이는 글을 읽는다고 했고, 2문단에서 읽기가 끝나면 글의 내용과 형식 등을 비교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동일한 화제의 글을 읽을 때는 형식적 특성도 고려한다. ⑤ 2문단에 따르면 읽은 글은 자신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로 쓰이는데 이를 위해 글의 한 부분을 인용할 수 있다. 이처럼 주제 통합적 독서를 하는 독자는 읽은 글의 내용을 선별하여 활용할 수는 있지만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2.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보기>의 학생은 제목과 서평 등을 보며 『군주론』, 『목민심서』, 『테레사 전기』를 골랐고, 책을 빠르게 훑어보며 『테레사 전기』는 읽지 않기로 했다. 이는 제목과 서평 등을 보며 읽기 목록을 만들었고, 선정한 책을 빠르게 훑어보며 읽기 목록을 수정한 것이다. 학생은 책의 제목과 서평 등을 보며 미리 만들어 놓은 읽기 목록을 수정하지는 않았다.

[오답풀이] ① 학생은 바람직한 지도자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 도서관에서 지도자에 관한 책을 검색했고, 『군주론』, 『목민심서』, 『테레사 전기』를 골랐다. ‘바람직한 지도자’라는 탐구 주제와 관련한 책을 검색하여 읽을 책을 선정한 것이다. ③ 학생은 읽기로 한 『군주론』, 『목민심서』, 『테레사 전기』를 빠르게 훑어보며 『군주론』에서는 시민을 다스리는 부분을, 『목민심서』에서는 백성을 교화하는 부분을 꼼꼼히 읽을 부분으로 선정하였다. ④ 학생은 『군주론』과 『목민심서』를 읽은 후 『군주론』에서는 강력한 지도자의 리더십을 강조했고, 『목민심서』에서는 인자하면서도 솔선수범하는 지도자의 리더십을 강조했다고 정리했다. 리더십과 관련하여 두 글쓴이의 관점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⑤ 학생은 두 글을 읽고 학생회장이 되면 인자하고 솔선수범하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바람직한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드러낸 것으로, 『목민심서』에 나오는 관점을 지지하며 자신의 관점을 구성한 것이다.

3.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이용해 추론한다.

3문단에서 현대 사회는 복잡한 성격의 사회 문제가 증가했는데, 이러한 성격의 문제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해야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했다. ㉠에서 ‘이런 점’이 의미하는 것은 주제 통합적 독서를 통해 복잡한 성격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제 통합적 독서는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고 통합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생성할 수 있다.

[4~7] (기술) 김상엽 외, 「안경학개론」

눈의 기능은 시력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정시와 비정시를 구별하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시와 비정시는 눈의 생물학적 구조와 광학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데 눈의 구조는 각막, 수정체, 방수, 유리체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눈에서 일어나는 굴절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그 특성이 사람마다 다르다. 따라서 눈의 굴절 현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초점이 맺히는 상태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눈의 구성 요소들의 수치를 표준화하여 만든 것이 모형안이다. 모형안을 기준으로 정시는 무조절 상태에서 눈 굴절력이 +59D이다. 눈 굴절력이 +59D보다 크면 초점이 망막 앞쪽에 맺히는 근시, +59D보다 작으면 망막 뒤쪽에 맺히는 원시이다. 무조절 상태에서 비정시의 정도를 정확히 판정할 수 있다면 필요한 만큼의 굴절력을 가진 (±)구면 렌즈를 눈앞에 대어 비정시를 교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3문단에서 사람마다 눈의 구조와 광학적 특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눈 굴절력이 다르다고 하였다. 따라서 눈 굴절력이 +59D로 일정하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서 눈은 굴절력이 일정한 각막과 굴절력이 변할 수 있는 수정체에 의해 초점이 망막에 맺히도록 한다고 하였다. ② 2문단에서 눈은 물체로부터 반사된 빛이 수정체의 조절 작용에 의해 망막에 초점이 맺히도록 한다고 하였고, 이때 최대 시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정시의 경우는 수정체의 조절 작용이 없는 무조절 상태에서 망막에 초점이

맺히지만 비정시의 경우 무조절 상태에서 망막에 초점이 맺히지 않는다. 그러나 수정체의 조절 작용이 일어나면 망막에 초점이 맺힐 수 있고, 이때가 최대 시력이라고 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눈 굴절력이 +61D인 근시는 -2D인 구면 렌즈를 눈앞에 대어 +59D인 정시로 교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눈 굴절력이 +59D보다 큰 근시는 (-)구면 렌즈로, 눈 굴절력이 +59D보다 작은 원시는 (+)구면 렌즈로 교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물체가 눈 앞 가까이 있을 경우 초점을 망막에 위치시키기 위해 수정체의 굴절력이 커지는 조절 작용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5.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굴절력은 초점 거리를 역수로 표시한다고 하였다. 초점 거리는 평행한 광선이 렌즈를 통과한 후 형성된 초점과 렌즈 사이의 거리이다. 따라서 굴절력이 커지면 초점 거리의 역수도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굴절력은 초점 거리의 역수이므로 굴절력이 작을수록 초점 거리는 길어진다. ③ (+)구면 렌즈는 광선을 모이게 한다.

6.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보기>에 제시된 눈은 모형안을 기준으로 +57D인 비정시이므로 초점이 망막 뒤쪽에 맺히는 원시이다. 운무법을 사용한다면 눈앞에 (+)구면 렌즈를 대어 인위적인 근시를 유도할 것이다. 그런 다음 (-)구면 렌즈를 순차적으로 덧대어 가면서 초점이 망막에 맺히게 되는 순간의 렌즈 값들을 합할 것이다. <보기>의 눈은 +57D의 원시이므로 +3D, +4D, +5D……와 같은 (+)구면 렌즈를 눈앞에 대면 인위적인 근시 상태를 유도할 수 있으며, +59D의 눈 굴절력을 갖도록 (-)구면 렌즈를 덧대야 망막에 초점이 맺힐 수 있다. 예를 들어 +3D인 구면 렌즈를 사용할 때는 -1D인 구면 렌즈를, +4D일 때는 -2D인 구면 렌즈를, +5D일 때는 -3D인 구면 렌즈를 덧대어야 망막에 초점이 맺힐 수 있다. 따라서 (+)구면 렌즈와 (-)구면 렌즈를 합한 값은 +2D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눈 굴절력이 +57D이므로 수정체의 조절량이 +2D만큼 커진다면 +59D가 되어 망막에 초점이 맺혀 최대 시력을 얻을 수 있다. ③ +57D에 +4D인 구면 렌즈를 대었다면 +61D가 될 것이고, 이 상태에서 -1D인 구면 렌즈를 덧대어도 +60D가 되어 근시 상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1D인 구면 렌즈를 덧대어도 무조절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7. [출제의도] 핵심 정보의 원리를 파악한다.

눈앞에 (+)구면 렌즈를 대어 초점이 망막의 앞쪽에 맺히도록 유도하는 것은 무조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인위적인 근시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근시의 경우는 인위적으로 근시 상태를 유도할 필요가 없지만, 원시의 경우 수정체의 조절 작용을 통해 정시인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8~11] (사회) 최봉철, 「현대법철학」

하트는 법 해석에서 법 규칙의 적용 가능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사례에 주목하였다. 하트는 법의 개방적 구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개방적 구조는 법이 명백하게 적용되는 핵심적인 사례에 있어서는 언어의 의미가 확정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계에 있는 사례에서는 언어의 의미가 불확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트는 법 규칙이 명백하게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판사는 법 외적인 요소를 고려한 재량을 행사하여 판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풀러는 법 규칙의 맥락과 법 규칙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해석 과정 전반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하

트의 법 해석에 대한 접근이 개별 단어들에 지나치게 집중한다고 보았다.

**8.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3문단에서 하트는 법 규칙의 의미가 확정적일 때 다른 요소를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법을 해석할 때 법 규칙의 적용 가능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일부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② 4문단에서 풀리는 하트의 법 해석에 대한 접근이 개별 단어들에 지나치게 집중한다고 보았다. ③ 3문단에서 하트는 판사가 경계에 있는 사례에 대해서 판결을 통해 법 규칙의 의미를 확정하는 기능도 수행한다고 보았다. ④ 1문단에서 법 해석은 법 규칙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9.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하트는 법 규칙처럼 언어로 만들어진 규칙이라면 대부분 개방적 구조를 가진다고 보았다.

[오답풀이] ① 개방적 구조는 법 규칙이 명백하게 적용되는 핵심적인 사례에 있어서는 언어의 의미가 확정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계 선상의 사례에서는 언어의 의미가 불확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③ 법 규칙이 명백하게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에 근거한 논리적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④ 개방적 구조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사태를 미리 알 수 없다. ⑤ 법 규칙은 핵심적인 사례에 있어서는 언어의 의미가 확정되어 있다. 경계에 있는 사례에서 법 규칙은 언어의 의미가 불확정적이어서 개방적 구조를 가진다.

**10.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은 규칙에 의해 약이 금지되는 '먹을 것'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살피고, 법 규칙이 명백하게 적용되지 않는 사례라면, 판사는 사회적 목적, 정책 등과 같은 법 외적인 요소를 고려한 재량을 행사하여 판결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은 약이 금지되는 '먹을 것'에 해당하는지를 판사가 규칙의 언어에 근거하여 확정했다면, 규칙의 목적을 고려하기보다 규칙을 구성하는 단어의 의미에 집중해서 규칙을 해석한다고 볼 것이다.

[오답풀이] ③ ㉡은 법을 해석할 때 규칙의 맥락과 목적을 해석 과정 전반에서 고려하여 판결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약이 금지되는 '먹을 것'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사례라고 하더라도 판사는 규칙의 맥락과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11.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이해한다.**

㉢의 '어떤 사례가 들어가기'의 '들어간다'는 '일정한 범위나 기준 안에 속하거나 포함되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오답풀이] ① '들어간다'는 '물체의 표면이 우묵하게 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② '들어간다'는 '밖에서 안으로 향하여 가다.'의 의미로 쓰였다. ③ '들어간다'는 '옷이나 신 따위의 치수가 몸에 맞다.'의 의미로 쓰였다. ④ '들어간다'는 '새로운 상태나 시기가 시작되다.'의 의미로 쓰였다.

[12~17] (인문 주제 통합) (가) 이가림, 「미적 판단의 규범성에 관한 연구」, (나) 신현주, 「미적 속성 실재론 혹은 반실재론: 미적 수반과의 양립 가능성」 (가) 이가림, 「미적 판단의 규범성에 관한 연구」 미학에서 우아함, 장엄함 등 소위 미적 속성에 대한 논쟁 중 하나는 미적 속성이 대상에 실재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미적 실재론에 따르면 미적 속성은 대상에 실재한다. 이는 어떤 미적 속성에 대한 미적 판단이 객관적으로 참일 때, 그 미적 속성이 실재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미적 반실재론은 대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미적 속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미적

판단은 대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속성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감상자의 주관적 반응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 미적 실재론과 미적 반실재론은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적 판단은 정당화가 요구되는 진술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의견이 동일하다.

**(나) 신현주, 「미적 속성 실재론 혹은 반실재론: 미적 수반과의 양립 가능성」**

수반이라는 개념은 윤리학 분야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여 다른 분야로 확산된 개념이다. 수반론에 따르면 비도덕적 속성에서 동일한 두 개인은 도덕적 속성에서도 동일하다. 이러한 논의에 영향을 받아 미학에서도 미적 속성과 비미적 속성 사이에 미적 수반이 존재한다고 보는 미학자들이 나타났다. 미적 수반이란 작품의 미적 속성이 그 작품의 비미적 속성에 의존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즉 비미적 속성의 차이 없이는 미적 속성의 차이도 없다고 본다. 미적 수반론은 미적 실재론에 미적 판단의 정당화 문제에 대하여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미적 실재론자들이 미적 수반론을 받아들일 경우 미적 판단의 해소 불가능한 불일치 문제를 설명하기 어렵다. 미적 반실재론자 입장에서는 미적 판단의 해소 불가능한 불일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미적 수반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데 미적 수반론을 수용하지 않는 미적 반실재론자는 미적 판단의 정당화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설명하기 쉽지 않다.

**12. [출제의도] 글의 설명 방식을 이해한다.**

(가)는 미적 실재론과 미적 반실재론 사이의 논쟁을 보여 주고 있다. 미적 속성이 대상에 실재하느냐에 대해 미적 실재론은 미적 속성이 대상에 실재한다고 보는 반면 미적 반실재론은 대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미적 속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미적 판단의 불일치가 일어날 때 미적 실재론은 일부 사람의 지각적 문제 혹은 미적 감수성의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그 일부가 대상의 실제 속성을 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미적 반실재론은 미적 감수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대상에 대해 각기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미적 실재론과 미적 반실재론은 이러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적 판단은 정당화가 요구되는 진술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의견이 일치한다.

[오답풀이] ① (가)는 미적 속성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구분이 미학 논쟁에서 중요한 까닭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② (나)는 미적 판단의 정당화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나 서로 충돌되는 견해를 절충하여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가)는 두 이론의 논쟁 과정을 통시적으로 보여 주고 있지 않다. (나)는 두 이론이 지역에 따라 달리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지 않다. ⑤ (가)와 (나) 모두 미적 판단의 기준을 통합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13.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가)의 3문단을 보면, 미적 반실재론은 대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미적 속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운명 교향곡'에 실재하는 미적 속성을 지각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은 미적 실재론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미적 실재론은 미적 판단의 불일치는 누군가의 지각적 문제 혹은 미적 감수성의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② 미적 실재론은 어떤 미적 속성에 대한 미적 판단이 객관적으로 참일 때, 그 미적 속성이 실재한다고 본다. ④ 미적 반실재론은 대상에 대한 미적 판단의 일치는 비슷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상에 대하여 비슷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14.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이해한다.**

수반론은 도덕적 속성과 비도덕적 속성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도덕적 속성은 비도덕적 속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도덕적 속성에서 동일한 두 개인은 도덕적 속성에서도 동일하다고 설명한다. 공자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와 동일하게 행동하지만 선한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이 있다는 주장은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으로 보아 비도덕적 속성이 동일한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선하지만 다른 사람은 선하지 않은 경우란 존재하기 어렵다고 이해할 수 있다.

**15.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장금이 미적 수반론을 부정하는 미적 반실재론자라면 미적 판단의 해소 불가능한 불일치는 쉽게 설명할 수 있지만 미적 판단의 정당화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는 설명하기 어렵다. 장금이 이러한 입장이라면 자신과 길동의 미적 판단이 다른 이유를 비미적 속성에서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미적 감수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것이다.

[오답풀이] ① 시블리는 감상자가 미적 감수성을 발휘해야 지각할 수 있는 속성을 미적 속성으로, 감상자가 시각과 청각 등의 지각 능력을 발휘하면 충분히 지각할 수 있는 속성을 비미적 속성으로 보았다. ④ (나)의 3문단을 보면, 미적 수반론을 지지하는 미적 실재론자는 미적 판단을 정당화하는 데 수반 관계를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의 어떤 미적 속성은 특정한 비미적 속성에 수반하는데, 그 비미적 속성이 대상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⑤ 미적 실재론자는 미적 판단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경우 일부가 그들이 가진 지각적 문제 혹은 미적 감수성의 부족 때문에 대상의 실제 속성을 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16.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는 미적 수반론이 미적 실재론자들에게 제기하는 문제이다. 미적 수반론을 수용하는 미적 실재론자들은 미적 판단의 해소 불가능한 불일치 문제를 설명하기 어렵다. 미적 속성이 비미적 속성에 수반한다는 것은 비미적 속성의 차이 없이는 미적 속성의 차이도 없다는 뜻이다. 즉 미적 수반론을 수용할 경우 지각 능력이나 미적 감수성 등이 충분함에도 미적 판단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까닭을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

**17.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이해한다.**

㉢에 해당하는 어휘는 '형성'이다. '형성'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형상을 이룸'이다. ㉡에 제시된 '완전히 다 이룸'은 '완성'의 사전적 의미에 해당한다.

**[18~23] (갈래 복합) (가) 이진유, 「속사미인곡」, (나) 이복길, 「오련가」, (다) 박지원, 「답흥덕보서제이」**

(가) 이진유, 「속사미인곡」  
조선 영조 때 사대부인 이진유가 유배지인 추자도에서 지은 가사이다. 이처럼 유배의 경험을 바탕으로 씌어진 가사를 일러 유배 가사라고 한다. 유배 가사는 보통 '연군의 정서'와 '유배 생활의 시련'이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작품이 구성된다. 「속사미인곡」은 다른 유배 가사에 비해 유배 생활의 시련이 자세하게 서술된 점에서 문학사적인 의미를 갖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서사-본사-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사는 유배지까지의 여정, 나주에서의 유배 생활, 추자도에서의 유배 생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문에는 본사의 일부와 결사가 수록되어 있는데 자신의 죄 없음과 억울함, 임을 향한 그리움, 임의 사랑을 회복하여 그와 재회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표현되어 있다.

(나) 이복길, 「오련가」  
조선 후기 사대부 이복길이 지은 연시조이다. 작가는 남성 사대부이나 내용은 이별한 임을 그리워하는 여성의 간절한 심정이다. 이러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나

타내기 위해 작가는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내용을 진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작품은 총 10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1~5수(전 5곡)와 6~10수(후 5곡)가 각각의 완결성을 갖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작품은 이른바 '꼬리 따기'라는 독특한 구성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앞 수 종장의 마지막 구절 또는 단어를 다음 수 초장에서 이어받아 시상을 전개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다) 박지원, 「답홍덕보서 제이」**

조선 후기 실학과 문인인 박지원이 그의 벗이자 선배였던 홍대용에게 답장으로 보낸 편지이다. 홍대용 역시 실학파의 대표적 학자로서 '덕보'는 그의 자(字: 과거 성인이 된 남자에게 새로 지어 준 이름)이다. 제목의 뜻은 '홍덕보의 편지에 두 번째로 답장한 글'이다. 박지원은 여러 작품을 통해 우정의 소중함을 역설하였는데 이 글도 그중 하나이다. 이 글에서 작가는 참된 벗 사귀는 모르고 명성·이익·권세를 좇아 사람들과 어울렸던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면서 참된 벗 사귀는 의미와 그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아울러 참된 벗 사귀는 어려운 당대의 세태도 비판하고 있다.

**18. [출제의도] 글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 (나)는 입을 만나고 싶은 마음, (다)는 참된 벗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다루고 있다. (가)는 연군의 마음을 바탕으로 쓴 유배 가사이므로 여기서 입은 임금을 상징하는 말로 이해된다. (가), (나)의 입과 (다)의 참된 벗은 모두 만나고 싶지만 만나기 힘든 대상이며 그러한 상황에 대해 (가), (나)의 화자와 (다)의 글쓴이가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세 작품은 공통점을 갖는다.

**19.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보기>에 제시된 자료를 참고할 때 '일월 같은 ~ 굽어볼까'는 해와 달처럼 밝은 지혜를 지닌 임금이 자신의 죄 없음과 충정의 마음을 알아주리라 작가의 믿음과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유배지에서 생활하는 자신의 일상에 임금이 관심을 보여 준 것을 감사해주는 마음에서 작가가 그와 같이 표현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④ '눌 위해 단장할꼬'에서 '단장'은 입에 대한 정성을 나타내는 행위로, 작가의 연군지정을 뜻하며 '내 얼굴 고왔던지', '유한한', '치마' 등의 표현과 함께 화자가 여성임을 짐작하게 하는 말이다. 이 구절에서 작가는 의문의 형식을 사용해 아름답게 단장해도 보아 줄 입이 없는 상황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연군지정이 임금에게 전해지기 힘든 상황을 부각했다. ⑤ '행여 고치시기를 날마다 고대하노라'에는 유배된 자신의 상황을 고칠 수 있는 주체가 임금이므로, 자신의 상황이 임금에 의해 변화되기를 바라는 작가의 심정이 담겨 있다.

**20. [출제의도] 시상의 흐름을 파악한다.**

<제2수>의 종장에서는 화자의 슬픈 마음('진주')과 입을 향한 정성이 담긴 물건('진짜 진주')을 입에게 보내고 싶은 소망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제3수>의 초장에서 화자는 '아실까'라고 물으며 소망 실현에 대한 확신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소망 실현에 대한 화자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제1수>에서는 '입 생각 → 꿈을 꿈 → 꿈속에서 입과 만남 → 잠에서 깨어남'의 순서로 시상이 전개된다. 이는 화자에게 일어난 일이 시간 순서로 제시된 것이다. ④ <제3수>의 종장에서 화자는 입의 뜻이 자신과 다를 경우 자신을 향해 크게 웃을 것이라며 특정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제4수>의 초장에서는 '대소 마시고'라고 하며 <제3수>의 종장에서 가정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

음이 나타나 있다.

**21.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한다.**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현재 상황에서 만나기 힘든 입을 꿈속에서 만나고 있다. 입을 만나고 싶은 현실의 소망이 꿈속에서나마 잠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이루기 힘든 화자의 소망이 '꿈'에 투영되어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가)의 '닭'과 (나)의 '피꼬리' 모두 화자의 꿈을 깨워, 꿈속에서 화자와 입이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이다. ② (가)의 '치마'는 입을 위해 단장하려고 화자가 지은 것이다. (나)의 '진짜 진주'는 입에게 보내고자 하는 화자의 정표이다. '치마'와 '진짜 진주' 모두 입에 대한 화자의 애정을 담고 있는 소재라는 점에서 성격이 같다. ③ (가)와 (나)의 '얼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화자의 처지와 관계가 없다. (가)의 '얼굴'은 '못 여자'의 '질투'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화자의 흘림함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의 '얼굴'은 그다음에 나오는 '일촌간장'과 대비되는 시어로 '일촌간장'은 화자의 마음을, '얼굴'은 육신을 뜻하는 말로 이해된다. ⑤ (가)의 '옥루'는 화자와 입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꿈속의 공간이므로, 죽은 이후에 입과의 재회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2.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㉞에서 '죽어 진토가 되다'(죽어 먼지가 된다 한들)는 상황을 가정한 표현이다. 이 표현은 그다음에 나오는 '이 마음 씩씩손가'와 연결되어, '내 육신은 죽어 먼지가 되어도 입을 향한 내 마음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부각한다. 따라서 ㉞이 입을 향한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절망감을 강조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④ ㉞에는 '명성'과 '비방', '송곳 끝'과 '산더미'가 대조되어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허황된 명성을 추구했던 젊은 시절 자신의 삶에 대해 명성은 보잘것없는 데 비해 그것이 초래한 사람들의 비방은 매우 심했다고 말하고 있다. ⑤ ㉞은 사람들이 이익과 권세를 좇다가 낭패를 보는 상황을 기름을 가까이했다가 옷만 더럽히는 상황에 비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이익과 권세라는 세속적 가치를 좇는 사람들에게 대한 비판적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23.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다)에서 글쓴이는 종놈이나 나무하는 아이와 같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참된 벗을 찾으려 했으나 그들에게 부족한 점이 있어 결국 참된 벗을 찾지 못한다. 그 결과로 글쓴이가 느낀 안타까운 마음이 '어찌 마음이 답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는 표현에 담겨 있다. 신분이 낮은 이들조차 글쓴이와 참된 벗 사귀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은 작품에 나와 있지 않다.

**[24~26] (현대시) (가) 윤동주, 「간」, (나) 문정희, 「신라의 무명 시인 지귀」**

**(가) 윤동주, 「간」**

이 시는 고전 소설 '토끼전'의 근원 설화로 (용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토끼의 간이 필요한) 거북이의 유혹에 빠진 토끼가 지혜를 발휘해 간을 지킨 '귀도 지설'과, 인간에게 불을 알려 준 죄로 제우스의 노여움을 사서 그 별로 코카서스 산에서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프로메테우스의 설화를 소재로 활용했다. 작가는 간을 지키려는 토끼의 의지와 프로메테우스의 희생을 연결하고 내용을 재구성하여 일제 강점기의 현실에서 희생을 감내하며 양심과 신념을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나) 문정희, 「신라의 무명 시인 지귀」**

이 시는 신라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지귀 설화'를 소재로 활용했다. 천한 신분으로 선덕 여왕을 사모하다

가 미쳐버린 지귀가 절에서 불공을 드리던 여왕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고, 그사이 여왕이 지귀를 동정하여 그의 가슴에 놓고 간 금팔찌를 보고 지귀가 운몽이 타올라 불귀신이 되었다는 설화의 내용을 변용했다.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해 설화에 나타난 여왕의 동정심을 적극적인 사랑 찾기로 바꾸어 신분 차이를 넘어서는 진실하고 존귀한 사랑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24.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가)는 '여원 독수리야!', '거북이야!'라고 부르는 방식을, (나)는 '지귀여, 지귀여, 사랑하는 지귀여'라고 부르는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오답풀이]** ③ (나)는 '누군 모르랴', '이 무슨 아름다운 업보인가.'라는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나 (가)는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지 않았다.

**25.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한다.**

㉠은 '둘러리'를 자꾸 돌며 간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간을 지켜낸 토끼처럼 화자가 간으로 상징되는 자신의 소중한 양심과 신념을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너'는 '내가 오래 기르던 여원 독수리'이다. 이것은 화자가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지만 더는 살찌우지 못한 자아로 볼 수 있다. '나'가 뜯어 먹고 여원은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자아를 살찌게 하려는 것이지,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③ '떠꺼머리'는 지귀를 가리킨다. ㉡은 신분 차이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에 못매를 사랑이 없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26.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나)의 '아름다운 업보'는 '전생에 지은'과 관련지어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여왕에 대한 지귀의 사모를 빗댄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의 내용은 현재에서의 사랑을 다루고 있으며, 내세에서 여왕과의 진실한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③ (가)의 '목에 맺들을 달고'는 설화에서 프로메테우스가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상황을 재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보기>의 '자기희생의 의지'와 관련지어 화자가 감수하고자 하는 희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나)의 '큰 불'은 설화에서 지귀가 불귀신이 된 내용과 관련이 있다. '큰 불'을 통해 신분의 장벽을 의미하는 '신라 땅 모든 사슬'을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기 바라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27~30] (현대 소설) 이동하, 「홍소」**

이 작품은 1970년대에 규격화된 아파트가 등장하여 새로운 주거 문화가 형성되면서 거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아파트는 거주민들에게 독립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였지만, 공동 주택이라는 특징에 기인하여 집단화된 생활 양식이 이루어지고, 주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받아 유행에 휩쓸리는 문화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거대하고 규격화된 아파트에 이사를 온 인물인 '나'의 시각을 통해 새로운 주거 환경에서 느끼는 인물들의 정서적 반응과 점차 변화해 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27. [출제의도] 인물에 대해 이해한다.**

아파트 사람들이 토요일 저녁에 피자 통조림을 주로 소비하고, 일요일 낮에 돼지갈비를 주로 소비하는 모습을 기이하게 여긴 것은 '나'이다.

**[오답풀이]** ① '나'는 부풀어 오른 아내의 마음을 터뜨리지 않기 위해서 명확히 종잡을 수 없는 모호한 감정을 은밀히 숨겨 둘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고 했다. 이를 통해 '나'가 이사 오면서 생긴 모호하고

알 수 없는 감정을 아내에게 드러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② 첫째 녀석이 홈런왕을 사달라고 조를 때, '나'는 아내가 말없이 웃고만 있는 것을 보고 첫째 녀석과 이미 답합이 된 모양이라고 여겼다. 이를 통해 '나'는 아내의 표정을 통해 아내가 첫째 녀석의 요구를 묵인하고 있음을 짐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홈런왕이 무엇인지 묻는 '나'의 물음에 첫째 녀석은 똑같은 플라스틱 완구를 들고 있는 대여섯 명의 조무래기들을 이끌고 당당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첫째 녀석은 아이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요구가 당당하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 주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아내는 월세를 물고 사는 임대 아파트이기는 하지만 독립가옥의 셋방살이와 달리 바깥 계단 쪽의 문만 닫으면 자유스러운 생활 공간이 확보되는 것에 크게 즐거워했다. 이를 통해 아내가 독립가옥의 셋방살이보다 월세를 물고 사는 임대 아파트의 삶이 더 낫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28.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A]는 입주자들이 이사 오는 장면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고, [B]는 '나'가 느끼는 여릿한 감정, 형언키 어려운 계면적움, 모호한 부끄러움 등의 복잡한 내면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A]에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A]에서 인물 간에 심화되는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B]에서 인물이 특정 행동을 한 의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A]에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심리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29. [출제의도] 인물의 갈등 양상을 이해한다.**

'나'는 유행에 따라 아이들이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아파트가(街) 특유의 속성으로 간주하고 있고, 첫째 녀석이 다른 친구들이 가진 장난감을 갖지 못하면 어느 패거리도 첫째 녀석을 끼워 주지 않는 상황을 겪으며 ㉠을 의식하기 시작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나'가 ㉠을 느끼는 이유는 무리에 속하지 못하는 이를 소외시키는 배타적 분위기를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0.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아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며 '나'가 실없는 웃음을 흘리고 있으므로, '나'가 실없는 웃음을 흘리는 것을 아파트의 편의성을 수용한 자신을 못마땅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그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자신의 아이들이 억울한 제재를 당할 위험이 없어진 것에 대해 아내의 즐거움은 매우 크다고 한 것에서, 아내는 아파트가 주는 독립성에 흡족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공동생활에 필요한 수칙들이 집마다 붙어 있고, 어머니회 등과 같은 단체들이 만들어진다고 한 것에서, 집단화되어 가는 아파트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 ③ 수백 수천의 똑같은 5층짜리 아파트를 보며 차가움, 견고함 등을 의식하는 '나'의 모습에서, 규격화된 아파트에 대한 '나'의 정서적 반응을 엿볼 수 있다. ④ 아이들이 모두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고, 첫째 녀석이 매번 새로운 것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에서, 아이들조차 유행에 휩쓸리는 아파트 문화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31~34] (고전 소설) 작자 미상, 「숙녀지기」**

이 소설은 여진주, 화홍미라는 두 여성의 우정을 다룬 한글 소설이다. 여성들 간의 관계가 작품 전면에 등장하고 당대 사회의 남성들이 보여 준 우정과 동등하게 형상화되고 있다. 이 작품의 두 주인공은 숙녀로서 당대 사회에서 중시한 유교적인 덕목을 충실히 구현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효를 행실의 근본으로 삼아 인, 의를 구현하는 모습은 숙녀로서 이상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서사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뉠 수 있다. 전반부는 여진주와

화홍미의 만남과 이별, 재회를 축으로 삼아 서사가 진행되는 부분이고, 후반부는 천자가 화홍미를 후궁으로 간택하면서 벌어지는 갈등이 형상화되어 있는 부분이다.

**31. [출제의도] 인물에 대해 이해한다.**

명문가의 태생인 여 소저는 아버지 시신을 고향에 안장하기 위해 제 시랑 집의 천비가 된다. 제 시랑은 미색과 용모가 뛰어난 여 소저에게 풍류를 가르쳐 기방에 보내고자 한다. 이에 여 소저는 미친 체한다. 병에 걸려 진짜로 실성한 것이 아니다. 화 소저가 여 소저의 내력을 듣고 여 소저가 고생하며 살아온 것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여 소저가 실성한 병에 걸려 그 병을 앓으며 지내 온 이유를 이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화 소저는 여자의 수행을 스승에게 배우지 못하므로 여 소저와 같은 여중 군사로부터 그 법도를 본받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 소저가 여 소저로부터 여자로서 수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 배울 수 있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④ 천자는 조서를 내리어 화 소저를 후궁으로 간택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를 통해 천자가 화 소저를 후궁으로 간택한 일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32.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을 파악한다.**

[A]에서 화 공은 여 소저의 인물됨을 궁금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화 소저가 답하자, 그 답을 듣고 여 소저가 규중 보옥이라고 말하고 있다. [A]에서 대화 상대에게 요청한 인물 정보와 관련하여, 상대의 답변을 듣고 [B]에서 그 인물에 관한 평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33.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을 이해한다.**

화 공은 화 소저의 말을 듣고 여 소저에 대해 규중 보옥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을 보고 필법의 정묘함, 글을 쓰는 재주와 학식 등이 뛰어남에 감탄하고 있다. 화 소저의 말을 통해 알게 된 여 소저의 역량에 대한 생각이 ㉠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여 소저는 천자 앞에서 자신이 온갖 형벌로 죽게 될 지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지조를 깨뜨리는 것은 아니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는 화 소저와 하늘에 맹세한 바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즉 벗과의 신의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벗과의 올바른 도리를 지향하는 것으로 여 소저가 의의 덕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천자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품성을 지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화법과 작문]**

35	①	36	④	37	①	38	③	39	④
40	⑤	41	②	42	③	43	①	44	②
45	④								

**35.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한다.**

발표자는 화면을 설명하면서 청중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 상호 작용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발표자는 청중과 공유한 경험을 언급하긴 했지만, 이를 활용하여 청중의 관심 분야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③ 발표자는 전문가들의 서로 다른 견해를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④ 발표자는 발표 중간중간에 내용을 요약하고 있지는 않다. ⑤ 발표자는 발표를 시작할 때 청중에게 기대하는 바를 언급하지 않았다.

**36.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을 파악한다.**

발표자는 ㉠을 활용하여 주기 유형을 설명하면서, 1세대에서 b, e, h가 1이었다가 2세대에서 d, e, f가 1

이 되고 3세대에서 다시 b, e, h가 1이 됨을 설명했다. 따라서 1세대와 3세대의 격자판의 양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을 활용하여, 격자판의 칸에 음영을 표시한 칸은 살아 있는 세포가 있는 칸이고 음영을 표시하지 않은 칸은 살아 있는 세포가 없는 칸임을 설명하였다. ② ㉡을 활용하여, 2세대에서 1인 이웃이 없는 a가 3세대에서 0이 되는 것을 세포의 고립에서 비롯된 결과로 설명하였다. ③ ㉢을 활용하여, 1인 이웃이 두 개이면 1이든 0이든 그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바탕으로 1인 이웃이 2개(b, d) 있는 a와 1인 이웃이 2개(d, f) 있는 b 모두 세대가 바뀌어도 상태가 변하지 않았음을 제시하였다. ⑤ ㉤을 활용하여, [화면 2]는 1세대에서 모든 칸이 1이었다가 3세대에서 모든 칸이 0이 되는 멸종 유형이고, [화면 3]은 1세대에서 b, d, f, h가 1이었던 것이 3세대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안정 유형이라는 점에서 두 유형이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37. [출제의도] 듣기 전략을 파악한다.**

이웃에 살아 있는 세포가 많을수록 세포의 생존에 불리하다는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 1은 이웃에 살아 있는 세포가 많을수록 세포의 생존에 유리하다고 짐작했던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학생 2는 발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정보가 있음을 아쉬워할 뿐, 발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③ 학생 3은 발표를 듣고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발표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뿐, 자신의 의문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다. ④ 학생 1은 발표에서 언급된 세포 과잉과 관련하여 1인 이웃이 네 개인 경우부터 세포 과잉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 발표 내용이 적용되지 않은 예외적 상황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학생 3은 해당 모형이 실제 현실에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을 뿐, 발표 내용이 적용되지 않은 예외적 상황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⑤ 학생 3이 발표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아 아쉬워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8. [출제의도] 글쓰기의 맥락을 파악한다.**

(가)는 작년 행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건의하는 글이다. (가)에서 작문 목적은 작년 행사의 문제점을 참고하여 행사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프로그램을 변경한 주체를 예상 독자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 ② (가)에서 글의 주체를 행사의 취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으로 삼고 있지 않다.

**39. [출제의도] 건의하는 글의 내용을 평가한다.**

3문단에서 에너지 하베스팅이 적용된 제품의 제작과 사용을 언급하며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하베스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체험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점검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② 2문단에서 작년 행사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한 내용은, 설문 조사 결과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올해 행사를 위해 개선해야 할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보기>의 ㉠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작년 행사가 자료를 전시하는 데 치우쳤다고 언급한 내용은, 작년 행사에 만족한 학생의 비율이 30%밖에 안 된 이유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기>의 ㉡를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40. [출제의도] 검토 의견을 반영해 글을 고쳐 쓴다.**

<보기>의 다섯 번째 문장에서 목적어에 맞게 서술어를 수정하라는 조언을 반영하지 않고, 해당 문장을

수정하였다.

[오답풀이] ① <보기>의 첫 번째 문장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된 '개조한다'를 대신하여 '개선한다'로 어휘를 바꾸었으므로, 부적절하게 사용된 어휘를 바꾸라는 조건을 반영하였다. ② <보기>의 두 번째 문장에서 잘못된 접속어인 '그러나'를 삭제하였으므로, 잘못된 접속어를 삭제하라는 조건을 반영하였다. ③ 글의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어긋나는 <보기>의 세 번째 문장을 삭제하였으므로, 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해치고 있는 문장을 삭제하라는 조건을 반영하였다. ④ <보기>의 네 번째 문장에서 목적어인 '에너지를'을 추가했으므로, 필요한 문장 성분을 추가하라는 조건을 반영하였다.

41. [출제의도] 발화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한다.

[A]의 대화에서 학생 2는 프로그램이 자료를 전시하는 데 치우쳐서 에너지 하베스팅을 일상생활과 관련지어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만족도가 낮은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B]의 대화에서 학생 2는 학생들이 신발 발전기를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을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42. [출제의도] 대화 맥락에 맞게 내용을 정리한다.

건의 내용을 점검하는 논의에서 건의 내용이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적합하다는 언급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내용은 회의록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② 작년 행사를 점검하는 논의에서 전시에 치우쳐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았다는 언급과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는 자료가 일부 있었다는 언급이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은 회의록의 내용으로 적절하다. ④ 추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논의에서 학생들이 전기가 생산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신발 발전기를 제작해서 신고 걷는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이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은 회의록의 내용으로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을 파악한다.

3문단에서 산업 진흥 정책과 함께 보육·교육 여건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가 발전할 때 청년층 인구 증가의 효과가 컸던 외국의 사례를 근거로 ○○시 청년층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청년층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에 관한 쟁점을 바탕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③ 청년층 인구 감소와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 양상을 '초고'에서 다루었지만, 문제의 다양한 발생 원인을 근거로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④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을 언급하지만 기존 방안의 한계라는 관점에서 문제에 대한 논의의 시급성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⑤ 청년층 인구 감소 문제의 여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을 제안하고 있지 않다.

44.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을 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작문의 계기가 포함되었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관용구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에서 앞 문장과의 응집성을 높일 수 있는 대용 표현을 사용하였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밝힌 작문의 계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③ 관용구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④ 1문단에서 밝힌 작문의 계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대용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다. ⑤ 관용구를 활용하지 않았고, 대용 표현도 활용하지 않았다.

45.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 파악한다.

<보기>의 (가)는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시의 전체 인구수 변동 추이와 전년도 대비 인구 감소율 및 20~30대 청년층 인구수 변동 추이와 전년도 대비 청년층 인구 감소율을 보여 주는 통계 자료이다. (다)는 ○○시의 청년층 인구가 타 지역보다 빠르게 감소하는 주요 원인을 제시한 전문가 인터뷰 자료이다. 이 인터뷰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함께 정주 여건의 악화를 청년층 인구 감소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러한 (가)와 (다)를 활용하더라도 우리 지역과 타 지역의 청년층의 구체적인 인구 감소 속도를 비교한 값을 추가할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가)의 2018년과 2022년의 전체 인구수 감소 추이를 활용하여 약 30만 명의 인구가 약 27만 명으로, 10% 가까이 줄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1문단에서 ○○시의 전체 인구가 2018년 비해 2022년에 10% 가까이 감소했다고 제시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해 나타낼 수 있다. ② (나)는 인구 증가를 위해 우리 지역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시 20~30대 청년층 주민들의 응답을 보여 주는 설문 조사 결과이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정주 여건을 개선할 필요성도 보여 준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3문단에서 보육·교육 여건의 개선과 문화 발전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추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정주 여건이 인구 유입의 장애 요인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다)의 전문가 인터뷰를 활용하여 청년층 인구가 타 지역에 비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교육, 문화와 같은 정주 여건의 열악함을 청년층 단위에서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추가할 수 있다.

[언어와 매체]

35	③	36	②	37	④	38	①	39	⑤
40	②	41	①	42	①	43	③	44	④
45	④								

35. [출제의도] 현대 국어의 의존 명사를 이해한다.

의존 명사 '바'는 선행 요소로 용언의 관형사형과만 결합한다. 후행 요소로는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부사격 조사, 서술격 조사 등의 다양한 격 조사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 또한 의존 명사 '바'는 후행 요소로 다양한 용언과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

36.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의존 명사를 이해한다.

㉠의 '줄'은 현대 국어 '줄'과 달리, 주격 조사와 결합할 수 있었고, 선행 요소로는 용언의 관형사형과 결합할 수 있었다. 중세 국어 '짓'은 여러 유형의 선행 요소 및 후행 요소와 두루 결합하여 쓰였다. ㉡의 '딛'은 현대 국어 '딛'과 같이, 선행 요소로 용언의 관형사형과 결합할 수 있었다. 또한 목적격 조사와 결합할 수 있었다. 중세 국어 '디'는 목적격 조사와 결합하여 쓰이지 않았다. ㉢의 '뽀'는 현대 국어 '뽀'와 달리, 부사격 조사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었다.

37. [출제의도] 단어의 음운 변동을 탐구한다.

'첫여름[천너름]'은 첨가('ㄴ' 첨가)가 한 번, 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가 두 번 일어나고, '울조리다[읍조리다]'는 탈락(자음군 단순화)이 한 번, 교체가 두 번(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일어나므로 ㉠과 ㉡에 모두 해당한다.

38. [출제의도] 단어의 구성 방식과 형성 방법을 파악한다.

'여단다'는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고, '접히다'는 동사 '접다'의 어근에 접미사 '-히-'가 결합하며 만들어진 동사이다. '높이다'는 형용사 '높다'의 어근에 접미사 '-이-'가 결합해 만들어진 동사이다.

39.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을 파악한다.

'ㄷ'은 문장 성분이 생략되지 않은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며 'ㄹ'은 주어가 생략된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40. [출제의도] 매체 정보의 전달 방식을 이해한다.

(가)의 방송 진행자는 수용자 이탈을 막기 위해 흥미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를 위해 사전에 제작된 자료 화면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오답풀이] ③ (가)에서는 수용자가 실시간 채팅을 통해 떡볶이 맛을 알려 달라고 한 요구에 따라 방송 진행자가 그와 관련된 정보를 구성하여 전달하고 있다.

41. [출제의도] 매체 참여자의 수용 양상에 대해 이해한다.

'낮달'과 '별총'은 방송에서 언급된 '백송'과 관련해 추가된 정보인 '태풍'과 '어린 백송'에 대한 정보를 '뚜벅'의 댓글을 통해 얻고 있다.

[오답풀이] ⑤ '뚜벅'이 '별총'의 댓글과 관련하여 '백송'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였으나, '뚜벅'이 추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별총'이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한 것은 아니다.

42. [출제의도]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

㉠에 탐방 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자고 한 것은 맞지만, 이를 위해 '뚜벅 님'이 언급하지 않은 소재를 추가하여 그림 자료로 보여 주지는 않았다. ㉡에 그림 자료로 제시된 '백송', '△△ 시장', '한옥'은 모두 '뚜벅 님'이 방송에서 언급한 소재이다.

43. [출제의도] 매체 언어의 특성을 파악한다.

'우선 뭐 줘 먹어야겠어요.'에 사용된 '뭐'는 정하지 않은 대상을 이르는 부정칭 대명사로, 방송 진행자가 아직 무엇을 먹을지 정하지 않은 상태임을 나타내는 것이지 수용자에게 먹거리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사용한 것은 아니다.

44. [출제의도]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에 대해 이해한다.

(가)를 보면 '유의 사항' 아래에 '회원 가입 바로 가기'가 있으므로,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의 사항을 읽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회원 가입 후 관리자의 승인 절차를 거친 후에만 '유의 사항'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는 PDF 파일의 형태로 '사용 설명서'를 다운받을 수 있다. ② '기기 사용 안내'는 사용자가 '무인 도서 대출 및 반납기'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무인 도서 대출'과 '무인 도서 반납'이라는 두 항목으로 나누어 구성했다. ③ '기기 사용 안내'는 화살표를 활용하여 사용 목적에 따라 기기를 조작하는 순서가 잘 드러나도록 안내했다. ⑤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안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통해, '기타 안내'의 각 항목은 관련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5. [출제의도] 매체 활용 방안을 이해한다.

(나)에서는 '20XX년 X월 15일'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20XX년 X월 13일'에 소통했던 과거의 이력에서 전자 사용 설명서 링크 주소를 가져왔다.

[오답풀이] ① (나)의 사용자들이 (가)에 제시된 정보를 유통하며 하이퍼링크를 활용하였으나, (가)에 제시된 내용을 수정하여 유통한 것은 아니다. ② (나)의 사용자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가)에서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한 것은 아니다. ③ (가)에서 정보를 수용한 사용자가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